

수능 기출

(가) 자연의 이용이 도리어 재앙을 가져온 예들은 인류 역사의 초기부터 있어 왔다. 지중해 여안은 한때 고대 그리스와 로마 문명을 비롯해서 여러 문명이 발생했다 사라진 곳인데 오늘날의 모습을 보면 과연 이곳이 당시 최고의 문명을 자랑했던 곳이었는지 의심스럽다. 그 중에 에페소스는 로마가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던 시기에 번성했던 유명한 해양 도시였다. 그러나 ①지금은 거대한 원형 경기장을 비롯해서 대리석 기둥, 훌륭한 조각품의 잔재들만이 폐허로 변해 버린 도시 전체에 흩어져 있을 뿐이다. 이렇게 에페소스의 문명이 갑자기 몰락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나) 오늘날 수령들은 옛날의 제후와 같아져 궁실과 수레, 의복과 음식, 그리고 좌우의 시종을 거느린 것이 마치 국군의 그것에 비길 만하다. 또 그들은 너네히 다른 사람을 경복(慶福)할 만하고, 그들의 형률(刑律)과 위엄은 충분히 사람들을 두렵게 할 만하다. 결국 수령들은 오만스럽게 자신을 뽐내고, 태평스럽게 스스로 안일에 빠져서 자신이 목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만다. 사람들이 분쟁을 일으켜 찾아가 판결을 구하면 번거로워 하면서 “왜 이렇게 시끄러우냐?” 하고, 굶어 주는 사람이 있으면 “چه 스스로 죽은 것일 뿐이다.”라고 한다. 곡식과 피륙을 바쳐서 섬기지 않으면 곤장을 치고 몽둥이질을 하여 피가 흘러서야 그친다. 날마다 거뒤편인 돈꾸러미를 헤아려 낱알이 기록하고, 돈과 피륙을 부고 하여 전답과 주택을 장만하여, 권세 있는 재상가에 뇌물을 보내 뒷날의 이익을 기다린다. 이렇고서야 백성이 목을 위하여 태어난 것이어니와, 어찌 이것이 타당한 이치이겠는가?

(다) 김인복(金仁福)이 소시에 노상에서 한 시골 선비를 만났는데 수정 갓끈을 달고 있었다. 그 갓끈이 너무 짧아서 겨우 턱 밑 을 돌아갔다. 인복이 말을 세우고 채찍을 들어 읊하고 말하였다.

“아, 아름답구나, 저 수정 갓끈이여! 천하일품이구려. 나의 가산을 기울여서라도 당신의 갓끈을 갖고 싶소.”

그 사람이 물기를

“당신 집이 어디요?”

“내 집은 승례문 밖 청파리라고. 내일 아침에 배다리만 찾아오우. 게서 김인복이를 물으면 행길에 누군들 모르겠소.”

서로 언약을 하고 헤어졌다.

이튿날 인복이 잠자리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그 사람이 대문으로 들어섰다.

인복이 마루 끝으로 나와 채마밭 머리에 평상을 내놓고 앉게 하였다. 인복이 말을 꺼내었다.

“우리집 논이 동성(東城) 흥인문(興仁門)밖에 있는데 한 말을 뿌리면 곡식 석섬을 먹는다오. ②우리 집에 크기가 실로 낙산(落山) 봉우리만한 소가 두 필이 라구. 봄 이삼월 토양이 살풀리고 산골의 얼음이 녹아 시냇물이 졸졸 흐르기 시

작하면 두 필 소에 쟁기를 달아 논을 갈고 씨레질을 하여서 물을 신는다고. 한 필지에 보통 15두(斗)를 파종하는 논이 여러 자리라. 팔월이 되어 논에 황금 물결이 일면 초승달 같은 낫을 대어 베어다가 타작을 하고 방아를 찧고 키질을 해서 옥처럼 댕이고 구슬처럼 정한 쌀이 술에 넣고 불을 때어 밥을 지으면 기름이 자르르 밥술에 흐르고 구수한 맛이 혀끝을 감도는구만.

(라) 디자인(design)의 기본 개념은 기능과 모양새이다. 이 두 요소는 서로 상반된 목적을 지향하고 있어, 양자 사이의 조화를 찾는 일이 그리 쉽지는 않다. **㉠기능을 중시하다 보면 모양새가 마땅치 않고, 모양새에 치중하다 보면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의 비행기와 자동차를 예로 들어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디자인을 얻을 수 있는가 생각해 보자.

(마) 1년, 이태, 때로는 3년까지 그냥 내버려 둔다. 계절이 바뀌고 추위, 더위가 여러 차례 순환한다. 그 동안에 상처 났던 바둑판은 제 힘으로 제 상처를 고쳐서 본디대로 유착(癒着)해 버리고, 균열진 자리에 머리카락 같은 희미한 흔적이 남는다.

비자의 생명은 유연성이란 특질에 있다. 한 번 균열이 생겼다가 제 힘으로 도로 유착·결합했다는 것은 그 유연성이란 특질을 실제로 증명해 보인, 이를테면 졸업 증서이다. 하마터면 목침감이 될 뻔했던 것이, 그 치명적인 시련을 이겨내면 되레 한 급(級)이 올라 특급품이 되어 버린다. 재미가 깨를 볶는 이야기다.

1. (가)의 ㉠과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은?(94학년도)1)

- ① 사필귀정(事必歸正) ② 상전벽해(桑田碧海) ③ 새옹지마(塞翁之馬)
- ④ 연목구어(緣木求魚) ⑤ 전화위복(轉禍爲福)

2. (나)에 나타난 수령의 형태와 가장 가까운 것은?(95학년도)2)

- ① 가렴주구(苛斂誅求) ② 환골탈태(換骨奪胎) ③ 자중지란(自中之亂)
- ④ 부화뇌동(附和雷同) ⑤ 자승자박(自繩自縛)

3. (다)의 ㉠과 같은 표현을 가리키기에 가장 적절한 말은?(97학년도)3)

- ① 과대망상(誇大妄想) ② 기고만장(氣高萬丈) ③ 구우일모(九牛一毛)
- ④ 능소능대(能小能大) ⑤ 침소봉대(針小棒大)

4. (라)의 ㉠에 가장 가까운 표현은? (98학년도)4)

- ① 진퇴양난(進退兩難) ② 점입가경(漸入佳境) ③ 일진일퇴(一進一退)
- ④ 갑론을박(甲論乙駁) ⑤ 양자택일(兩者擇一)

5. (마)와 관련성이 가장 적은 것은?(99학년도)5)

- ① 조변석개(朝變夕改) ② 청출어람(靑出於藍) ③ 고진감래(苦盡甘來)
- ④ 개과천선(改過遷善) ⑤ 전화위복(轉禍爲福)

(가) 내가 조회(朝會)에 사용할 아악을 창제하고자 하는데, 예로부터 법을 세우고 창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어떤 때는 임금이 하고자 하는 바를 신하가 저지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신하가 하고자 하는 바를 임금이 듣지 아니하기도 한다. ㉠ 위와 아래에서 모두 하고자 하여도 시운(時運)이 불리한 때도 있는데, 지금은 나의 뜻이 먼저 정해지고 또 국가에도 별다른 일이 없는 좋은 기회이니 최선을 다해 이 일을 이루도록 하라

(나) 이와 같이 기술 혁신의 과정은 과다한 비용 지출이나 실패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험난한 길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 기술 혁신에 도전했던 기업가와 기술자의 노력 덕분에 산업의 생산성은 지속적으로 향상되었고, 지금 우리는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 우리가 ㉡ 기술 혁신의 역사를 돌아보고 그 의미를 되짚는 이유는, 그러한 위험 요인들을 예측하고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만이 앞으로 다가올 기술 혁신을 주도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 때문이다.

(다) 친구인 겸산(兼山) 유재건(劉在建)이 나와 뜻이 통하여 여러 사람의 문집 속에서 더듬고 찾아서 이미 전(傳)에 오른 사람 약간 명을 얻었다. 그리고 전이 없는 사람은 겸산이 직접 전을 지었다. 그리하여 모두 280여 편이 된다. 정성스럽게 책을 만들어 제목을 『이향견문록(里鄉見聞錄)』이라 붙이고 나에게 서문을 요청하였다. 내 어찌 감히 사양할 수 있겠는가!

(라) 교씨는 눈물을 거두며 대답했다.

“그같이 조치하시다니……. 이제 첩의 원한이 거의 풀렸습니다. 하지만 ㉢ 부인의 자리를 첩이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한림은 즉시 일가들에게 통지하여 아침에 모두 사당 아래로 모이게 했다.

아아! 유 소사는 지하에서 일어날 수 없고 두 부인도 만 리나 멀리 떠났으니, 누가 한림의 뜻을 돌릴 수 있겠는가?

여러 시비들이 달려가 사씨에게 그 전말을 고하고 통곡하였다.

(마) 공이 웃으며 말했다.

“이미 지나간 일이라. ㉣ 그저 돌아가도 남에게 웃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돌아가지 않으면 즉 허황함이 막심한지라. 내일은 곧 전안(奠雁)* 날이니 부득이 내일만 찾아보리라.”

(바) 이윽고 밤이 깊어지자 달이 동산에 떠올라 달그림자가 창살에 비쳤다. 문득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여인이 묻기를,

“누구냐? 시녀가 왔느냐?”

시녀가 말하기를,

“예, 집니다. ㉤ 요즘 아가씨께서는 중문 밖을 나가지 않으셨고 뜰 안에서도 좀처럼 걷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엿저녁에는 우연히 나가시더니 어찌 이 먼 곳까지 오셨습니까?”

6. ㉠과 잘 어울리는 것은? (00학년도)6)

- ① 갑론을박(甲論乙駁) ② 공평무사(公平無私) ③ 동문서답(東問西答)
- ④ 천재일우(千載一遇) ⑤ 백년하청(百年河淸)

7. ㉡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05학년도)7)

- ① 온고지신(溫故知新) ② 다다익선(多多益善) ③ 연목구어(緣木求魚)
- ④ 일거양득(一舉兩得) ⑤ 동상이몽(同床異夢)

8. (다)를 보아 ‘유재건’과 ‘나’의 관계를 뜻하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06학년도)8)

- ① 지기지우(知己之友) ② 오월동주(吳越同舟) ③ 근묵자흑(近墨者黑)
- ④ 동상이몽(同床異夢) ⑤ 순망치한(唇亡齒寒)

9. 독자의 입장에서 (라)의 ㉢를 비판하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08학년도) 9)

- 교씨는 부인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사씨를 모함했음.

- ① 표리부동(表裏不同) ② 경거망동(輕舉妄動) ③ 호가호위(狐假虎威)
- ④ 방약무인(傍若無人) ⑤ 감탄고토(甘呑苦吐)

10. (마)의 ㉣에 나타난 ‘상공’의 상황과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은? (09학년도)10)

- ① 이왕지사(已往之事) ② 자포자기(自暴自棄) ③ 만시지탄(晩時之歎)
- ④ 진퇴양난(進退兩難) ⑤ 새옹지마(塞翁之馬)

11. (바)의 ㉤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은?(10학년도)11)

- ① 두문불출(杜門不出) ② 가인박명(佳人薄命) ③ 일편단심(一片丹心)
- ④ 망양지탄(亡羊之歎) ⑤ 독야청청(獨也靑靑)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11학년도)

진사는 특이 죽으면 재물을 묻은 곳을 알 수 없게 될까 염려되어, 약을 입에 흘려 넣는 등 특을 살려 냈습니다. 그러자 특이 십여 일 만에 일어나 말했습니다. “제가 혼자 산 속에서 지키고 있는데 많은 도적들이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 박살날 것 같아 죽을힘을 다해 달아나 겨우 목숨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물이 아니었다면 제가 어찌 이런 위험에 처했겠습니까? 운명이 이리도 험한데 어찌 빨리 죽지 않는고!”

말을 마친 특은 발로 땅을 차고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통곡 했습니다.

12. ‘특’이 ㉠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을 때,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12)

“()이었으나 겨우 도망했습니다.”

- ① 내우외환(內憂外患) ② 명재경각(命在頃刻) ③ 사고무친(四顧無親)
- ④ 오리무중(五里霧中) ⑤ 자승자박(自繩自縛)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12학년도)

(라) 이에 다섯 아들이 같이 어미의 방을 둘러싸고 쳐들어가니 북곽 선생이 크게 놀라서 도망쳤다.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까 겁이 나 한 다리를 목덜미에 얹고 귀신처럼 춤추고 낄낄거리며 문을 나가서 내닫다가 그만 들판의 구덩이 속에 빠져버렸다. 그 구덩이에는 똥이 가득 차 있었다.

(마) 간신히 기어올라 머리를 내밀고 바라보니 한 범이 길을 막고 있었다. 범이 오만상을 찌푸리고 구역질을 하며 코를 싸쥐고 머리를 왼쪽으로 돌리며 한숨을 쉬고 말했다.

“어허, 유자(儒者)여! 구리도다.”

북곽 선생이 머리를 조아리고 엉금엉금 기어 나와서 세 번 절하고 꿇어앉아 우러러 말했다.

“범님의 덕은 지극하시지요. 대인은 그 변화를 본받고 제왕은 그 걸음을 배우며, 자식 된 자는 그 효성을 본받고 장수는 그 위엄을 취합니다. 범님의 이름은 신훈(神龍)의 짝이 되는지라, 한 분은 바람을 일으키시고 한 분은 구름을 일으키시니, 저 같은 하토(下土)의 천한 신하는 감히 아랫 자리에 서웁니다.”

범이 꾸짖었다.

“내 앞에 가까이 오지 마라. 앞서 내 듣건대, 유(儒)*란 것은 유(諛)*라 하더니 과연 그렇구나. 네가 평소에 천하의 악명을 모아 망령되게 내게 덮어씌우더니, 이제 사정이 급해지자 면전에서 아침을 떠니 누가 곧이듣겠느냐. 천하의 원리는 하나다. 범의 본성이 악한 것이라면 인간의 본성도 악할 것이요, 인간의 본성이 선한 것이라면 범의 본성도 선할 것이다.”

(중략)

(바) 북곽 선생이 자리에서 물러나 한참 엎드렸다가 일어나 엉거주춤하더니, 두 번 절하고 머리를 거듭 조아리며 말했다.

“『맹자』에 이르기를, 비록 악한 사람이라도 목욕재계를 한다면 상제(上帝)라도 섬길 수 있다 하였사오니, 이 하토에 살고 있는 천한 신하가 감히 아랫 자리에 서웁니다.”

숨을 죽이고서 가만히 들어 보았다. 오래도록 아무런 분부가 없으므로 실로 황송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여 손을 맞잡고머리를 조아리며 우러러보니 동녘이 밝았는데, 범은 벌써 가고 없었다.

마침 아침에 밭 갈러 온 농부가,

“선생님, 무슨 일로 이 꼭두새벽에 들판에 대고 절을 하시습니까?”

라 물으니, 북곽 선생이 말했다.

“내 일찍이 들으니 ‘하늘이 높다 하되 머리 어찌 안 굽히며, 땅이 두텁다 하되 어찌 조심스레 걷지 않겠는가.’ 하였네그려.”

- 박지원, 「호질」

* 유(儒) : 선비. * 유(諛) : 아첨하다.

13. (라)~(바)에 나타난 북곽 선생의 행위를 표현하는 말로 거리가 먼 것은?13)

- ① 자화자찬(自畫自讚) ② 감언이설(甘言利說) ③ 임기응변(臨機應變)
 ④ 대경실색(大驚失色) ⑤ 전전긍긍(戰戰兢兢)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13학년도)

차설. 장 공이 뇌양에 온 후로 몸이 평안하나 주야 해룡을 생각하고 부인으로 더불어 슬퍼하더니, 부인이 이로 인하여 침석에 위독하여 백약이 무효하매 공이 주야 병측을 떠나지 아니하더니, 일일은 부인이 공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려 왈,
 “첩의 팔자 기박하여 한 날 자식을 난중(亂中)에 잃고 지금 보전함은 요행 생전에 만나 볼까 하였더니 십여 년 존망을 모르매 병입골수하여 명이 오늘뿐이라. ㉠ 구천에 돌아간들 어찌 눈을 감으리오? 바라건대 공은 길이 보중 하소서.”
 하고 인하여 명이 진하니, 장 공이 낮을 대고 애통하여 자로 기절하매 좌우가 붙들어 구호하더니, 밖에서 방울이 굴러 부인 시신 앞으로 들어가거늘, 모두 보니 풀잎 같은 것을 물어다 놓고 가는지라. 급히 집어 보니 나뭇잎 같은 것이로 되 가늘게 썼으되 ‘보은초(報恩草)’라 하였거늘, 공이 대희 왈,
 “이는 막 씨가 보은한 것이로다.”
 하고, 그 풀을 부인 입에 넣으니, 식경 후에 부인이 몸을 운동하여 돌아눕거늘, 좌우가 울음을 그치고 수족을 주무르니 그제야 부인이 숨을 길게 쉬는지라. 공이 병을 물은대, 부인이 자고 나매 정신이 썩썩하다고 대답하니, 공이 대열하여 방울의 수말(4)을 다하고 못내 기뻐하더라.
 그 후로 부인의 병세 과연 평복되니 부인이 친히 막 씨의 집에 가 재생지은(再生之恩)을 만만사례하고 맺어 형제 되매, 그 후로는 방울이 굴러 부인 앞에 오거늘 장 공 부부 사랑하여 손에 놓지 아니하니, 방울이 아는 듯 이리 안기며 저리 품기어 영민함이 사람 뜻대로 하는지라, 이름을 ‘금령(金鈴)’이라 했다.
 - 작자 미상, <금방울전>

14. ㉠의 상황을 나타내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14)

- ① 각골통한(刻骨痛恨) ② 구사일생(九死一生) ③ 사필귀정(事必歸正)
- ④ 순망치한(唇亡齒寒) ⑤ 연목구어(緣木求魚)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14학년도)

나는 통사무소로 갔다. 행복동 주민들이 잔뜩 몰려들어 자기의 의견들을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 들을 사람은 두셋밖에 안 되는데 수십 명이 거의 동시에 떠들어대고 있었다. 쓸데없는 짓이었다. 떠든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

15. ㉠의 상황을 나타내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15)

- ① 유구무언(有口無言) ② 일구이언(一口二言) ③ 중구난방(衆口難防)
- ④ 진퇴양난(進退兩難) ⑤ 횡설수설(橫說豎說)

1) ②

- ①사필귀정(事必歸正) - 무슨 일이든지 결국 옳은 이치대로 귀결됨
- ②상전벽해(桑田碧海) - 뽕나무밭이 변해 푸른 바다가 됨. 세상일이 덧없이 바뀔을 비유하는 말
- ③새옹지마(塞翁之馬) - 한 때의 이로움이 장래의 해(害)가 되기도 하고 화(禍)가 복(福)이 되기도 함을 뜻하는 말
- ④연목구어(緣木求魚) - 나무에 올라가 고기를 구하듯 되지도 않을 엉뚱한 소망을 비유한 말
- ⑤전화위복(轉禍爲福) - 화(禍)가 바뀌어 오히려 복(福)이 됨.

2) ①

- ①가렴주구(苛斂誅求) - 세금을 혹독하게 징수하고, 강제로 제물을 빼앗음.
- ②환골탈태(換骨奪胎) - 완전히 새롭게 태어남
- ③자중지란(自中之亂) - 같은 집단 내에서 일어나는 싸움질
- ④부화뇌동(附和雷同) - 자기 주장이 없이 남들의 언행에 덩달아 좇아 행동함을 이룸
- ⑤자승자박(自繩自縛) - 자신이 끈 새끼로 자기 몸을 묶음. 곧 말과 행동을 잘못하여 스스로 얽매이게 됨

3) ⑤

- ①과대망상(誇大妄想) - 턱없이 헛된 생각
- ②기고만장(氣高萬丈) - 기운이 펄펄남
- ③구우일모(九牛一毛) - 무시해도 좋을 만큼 적은 것
- ④능소능대(能小能大) - 모든 일에 두루 능함을 의미
- ⑤침소봉대(針小棒大) - 바늘만 한 것을 몽둥이만 하다고 한다는 뜻으로, 작은 일을 크게 허풍을 떨어 말함

4) ①

- ①진퇴양난(進退兩難) -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어려운 처지
- ②점입가경(漸入佳境) - 차차 재미있는 경지로 들어감. / 시간이 지날수록 하는 것이나 물결이 더욱 쫄쫄거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③일진일퇴(一進一退) - 한 번 앞으로 나아갔다 한 번 뒤로 물러섰다 함.
- ④갑론을박(甲論乙駁) - 여러 사람이 서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며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함.
- ⑤양자택일(兩者擇一) - 둘 중에서 하나를 고름

5) ①

- ①조변석개(朝變夕改) - 아침저녁으로 뜯어고친다는 뜻으로, 계획이나 결정 따위를 일관성이 없이 자주 고침을 이르는 말. ≒조개모변·조변모개·조석변개.
- ②청출어람(靑出於藍) - 쪽에서 뽑아낸 푸른 물감이 쪽보다 더 푸르다는 뜻으로, 제자나 후배가 스승이나 선배보다 나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③고진감래(苦盡甘來) -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으로,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옴을 이르는 말
- ④개과천선(改過遷善) - 지난날의 잘못이나 허물을 고쳐 올바르게 착하게 됨
- ⑤전화위복(轉禍爲福) - 재앙과 화난이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됨

6) ④

- ①갑론을박(甲論乙駁) - 어떤 일에 대하여 서로 상반된 견해를 주고 받음을 뜻한다.
- ②공평무사(公平無私) -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사적인 감정에 치우치지 않음을 뜻한다.
- ③동문서답(東問西答) - 물음과 전혀 다른 엉뚱한 대답을 뜻한다.
- ④천재일우(千載一遇) - 천 년 동안 단 한 번 만난다는 뜻으로,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좋은 기회를 이르는 말.
- ⑤백년하청(百年河淸) - 황하의 물은 백 년이 지나도 맑아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아무리 바라보고 기다려도 실현 가능성이 없음을 뜻한다.

7) ①

- ①온고지신(溫故知新) -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것을 앎
- ②다다익선(多多益善) -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음
- ③연목구어(緣木求魚) -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한다는 뜻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려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④일거양득(一舉兩得) - 한 가지 일을 하여 두 가지 이익을 얻음
- ⑤동상이몽(同床異夢) - 같은 자리에 자면서 다른 꿈을 꾸는 뜻으로,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도 속으로는 각각 판생각을 하고 있음을 이르는 말

8) ①

- ①지기지우(知己之友) : 자기의 속마음을 참되게 알아주는 친구
- ②오월동주(吳越同舟) : 서로 적의를 품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있게 된 경우나 서로 협력하여야 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③근목자흑(近墨者黑) : 먹에 가까이하는 사람은 검어진다는 뜻으로, 나쁜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나쁜 버릇에 물들기 쉬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④동상이몽(同床異夢) : 같은 자리에 자면서 다른 꿈을 꾸는 뜻으로,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도 속으로는 각각 판생각을 하고 있음을 이르는 말
- ⑤순망치한(脣亡齒寒) :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으로, 서로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이에 어느 한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도 그 영향을 받아 온전하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

9) ①

- ①표리부동(表裏不同) - 마음이 음흉하고 불량하여 겉과 속이 다름.
- ②경거망동(輕舉妄動) - 경솔하여 생각 없이 망령되게 행동함. 또는 그런 행동
- ③호가호위(狐假虎威) - 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림. 《전국책》의 <초책(楚策)>에 나오는 말로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 호기를 부린다는 데에서 유래한다.
- ④방약무인(傍若無人) - 곁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아무 거리낌 없이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태도가 있음.
- ⑤감탄고토(甘呑苦吐) -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뜻으로, 자신의 비위에 따라서 사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을 이르는 말.

10) ④

- ① 이왕지사(已往之事) : 이미 지나간 일.
- ② 자포자기(自暴自棄) : 절망에 빠져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고 돌아보지 아니함.
- ③ 만시지탄(晩時之歎) : 시기에 늦어 기회를 놓쳤음을 안타까워하는 탄식.

- ④ 진퇴양난(進退兩難) :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어려운 처지.
- ⑤ 새옹지마(塞翁之馬) : 인생의 길흉화복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말. 옛날에 새옹이 기르던 말이 오랑캐 땅으로 달아나서 노인이 낙심하였는데, 그 후에 돌아났던 말이 준마를 한 필 끌고 와서 그 덕분에 훌륭한 말을 얻게 되었으나 아들이 그 준마를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으므로 노인이 다시 낙심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아들이 전쟁에 끌려 나가지 아니하고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한다. 중국 《회남자》의 ‘인간훈(人間訓)’에 나오는 말이다.

11) ①

- ① 두문불출(杜門不出) : 집에만 있고 바깥출입을 아니함.
- ② 가인박명(佳人薄命) : 미인은 불행하거나 병약하여 요절하는 일이 많음.
- ③ 일편단심(一片丹心) : 한 조각의 붉은 마음이라는 뜻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변치 아니하는 마음을 이르는 말.
- ④ 망양지탄(亡羊之歎) : 갈림길이 매우 많아 잃어버린 양을 찾을 길이 없음을 탄식한다는 뜻으로, 학문의 길이 여러 갈래여서 한 갈래의 진리도 얻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
- ⑤ 독야청청(獨也靑靑) : 남들이 모두 절개를 꺾는 상황 속에서도 홀로 절개를 굳세게 지키고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2) ②

- ① 내우외환(內憂外患) : 나라 안팎의 여러 가지 어려움.
- ② 명재경각(命在頃刻) : 거의 죽게 되어 곧 숨이 끊어질 지경에 이름.
- ③ 사고무친(四顧無親) : 의지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음.
- ④ 오리무중(五里霧中) : 오 리나 되는 짙은 안개 속에 있다는 뜻으로, 무슨 일에 대하여 방향이나 갈피를 잡을 수 없음을 이르는 말.
- ⑤ 자승자박(自繩自縛) : 자기의 줄로 자기 몸을 묶어 묶는다는 뜻으로, 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 자기 자신이 오히려 곤란하게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3) ①

- ① 자화자찬(自畫自讚) : 자기가 그린 그림을 스스로 칭찬한다는 뜻으로, 자기가 한 일을 스스로 자랑함을 이르는 말.
- ② 감언이설(甘言利說) : 귀가 솔깃하도록 남의 비위를 맞추거나 이로운 조건을 내세워 꾀는 말
- ③ 임기응변(臨機應變) : 그때그때 처한 사태에 맞추어 즉각 그 자리에서 결정하거나 처리함.
- ④ 대경失色(大驚失色) : 몹시 놀라 얼굴빛이 하얗게 질림.
- ⑤ 전전긍긍(戰戰兢兢) : 몹시 두려워서 벌벌 떨며 조심함.

14) ①

- ① 각골통한(刻骨痛恨) : 뼈에 사무칠 만큼 원통하고 한스러움. 또는 그런 일.
- ② 구사일생(九死一生) : 아홉 번 죽을 뻔하다 한 번 살아난다는 뜻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고 겨우 살아남을 이르는 말.
- ③ 사필귀정(事必歸正) :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감.
- ④ 순망치한(唇亡齒寒) :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으로, 서로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이에 어느 한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도 그 영향을 받아 온전하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

⑤ 연목구어(緣木求魚) :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한다는 뜻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려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5) ③

① 유구무언(有口無言): 입은 있어도 말은 없다는 뜻으로, 변명할 말이 없거나 변명을 못함을 이르는 말.

② 일구이언(一口二言): 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다는 뜻으로, 한 가지 일에 대하여 말을 이랬다저랬다 함을 이르는 말.

③중구난방(衆口難防)이란 ‘막기 어려울 정도로 여럿이 마구 지껄임을 이르는 말 말.

④ 진퇴양난(進退兩難):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처지를 이르는 말.

⑤ 횡설수설(橫說豎說): 조리가 없이 말을 하는 것을 이르는 말.